

닭고기값 내려도 여전히 비싼 삼계탕

이달 육계 도축량 7000만 마리 전년비 4%↑...도매가는 23.9%↓ 광주 삼계탕 값 1만 6400원 2년새 10% 상승...전남 1만6000원

올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복달임용' 삼계탕을 먹는 데 2년 전보다 10%나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 무더위를 알리는 복달(초복·7월 15일)을 앞두고 닭고기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4% 가량 늘고 닭고기 도·소매가도 내렸지만 고물가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먹어야 할 처지다.

◇복달 공급하는 닭고기는 늘었는데=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내놓은 관측정보에 따르면 이달 육계 도축량은 6956만~7097만 마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4%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음달 도축량도 6830만~6968만 마리로 전년

동월 대비 1.0% 늘어나는 등 삼복(말복·8월 14일) 특수 닭고기 수급 상황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량 증가로 가격 하락도 예고됐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육계는 올 상반기 산지 가격이 1년 전에 견줘 12.2~38.0% 가량 싸다.

◇도·소매가도 내렸는데=초복이 있는 이달 육계 산지 가격은 1kg 당 1600~1800원으로, 전년 동월(2382원)에 견줘 24.4~32.8% 쌀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1460원)보다는 올랐지만 매년 복달이 있는 7·8월 육계 가격이 뛰는 것을 감안하면 상승 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이다.

닭고기 도·소매가 하락세도 뚜렷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닭고기 도매가는 1kg 당 3009원으로 전년 동월(2064원) 대비 23.9% 하락했다. 소매가는 전년보다 8% 하락한 5902원으로 나타났다.

◇삼계탕값은 오히려 올라=반면, 음식점 삼계탕 가격은 고공 행진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광주지역 삼계탕 가격은 1만 6400원. 2년 전보다 무려 10.1%나 올랐다. 전북(1만 7000원), 서울(1만 6885원), 경기(1만 6724원) 다음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네번째로 높았다.

전남도 비슷하다. 삼계탕 한 그릇에 1만 6000원을 내야 한다. 2년 전보다 5.1%나 상승했다.

삼계탕 물가는 지난해 3월 9.8% 오르는 등 급격히 치솟은 이후 오르내리락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부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삼계탕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남도 비슷하다. 삼계탕 한 그릇에 1만 6000원을 내야 한다. 2년 전보다 5.1%나 상승했다.

삼계탕 물가는 지난해 3월 9.8% 오르는 등 급격히 치솟은 이후 오르내리락 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산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부대 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삼계탕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장영영 기자 zy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소서엔 국수·수제비 즐겼는데

수입 밀에 밀린 '우리 밀'...식량 안보 위기 슬기롭게 대처해야

6월이 절기상 소서(小暑)였다. 소서는 음력으로 6월 하지(夏至)와 대서(大暑) 사이에 있다. 소서라는 말은 '작은 더위'라는 뜻이다. 역사서 '고려사'에 따르면 소서는 6월의 절기로 이 무렵의 보름간을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었는데, 초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중후에는 귀뚜라미가 벽에서 살며, 말후에는 매가 새를 잡기 시작한다고 했다.

소서는 더위보다는 장마와 관련이 깊다. 소서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장마전선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 기간 비가 많이 내려 하천이 넘치고 논이 침수돼 종종 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물에 취약한 참깨 농사와 수박 농사에도 악영향을 준다.

날씨 영향도 있겠지만 소서 즈음의 농촌은 심었던 모가 열심히 자라는 중이라 발매기 정도에 만 신경 쓸 정도여서 농번기치고는 비교적 한가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소서는 농사일을 잠시 쉬며 밀가루 음식을 먹는 절기로 알려졌다. 선조들은 음력 유월 보름을 전후로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이때 밀가루 음식인 국수와 수제비 등을 별미로 먹었다고 한다. 밀가루의 원료인 밀은 우리의 주식용 먹거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陰)의 기운을 가졌는데, 열을 내리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더위를 식혀준다. 더운 여름철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전해져 온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식재료이다.

그런데 우리는 밀이라고 하면 수입 밀가루를 떠올리며 전통의 밀(우리 밀)과 확연한 차이를 두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전은 물론이고 국수와 수제비를 만드는 데 쓰는 밀가루는 당연히 수입 밀이라는 생각에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코카서스에 이르는 지역이 원산지라 추정되는 밀은 기원전 2000년경 유럽과 인도, 동남을 거쳐 중국을 지나 기원전 100년경 한반도에 들어왔다. 평안남도 대동군 미림지에서 한반도 최초 밀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에서는 밀이 재배됐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백제·신라 유적에서도 밀이 두루 발견되는 것을 보면 삼국시대에 이미 밀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선시대 재배가 늘면서 서민들도 국수 같은 밀가루 음식을 즐길 정도로 번창했던 우리 밀 농업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 원조와 1960년대 값싼 수입 밀이 들어오면서 점차 자리를 잃게 됐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82년 밀수입 자유화와 1984년 정부 밀 수매 폐지였다. 국내 밀 생산량은 감소하는 데 반해 1960년대 대 혼·분식 장려운동, 라면과 빵 등 밀가루 음식 소비 증가로 인해 밀 자급률은 1990년 초반 0.05%까지 곤두박질쳤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1991년 농민과 소비자 주도로 계약재배를 통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막대한 수매자금 때문에 아직 소비촉진과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올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 밀 자급률 5% 달성이 '헛구호'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2%를 기록했던 자급률이 다시 1%대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 쌀 소비는 줄고 있지만, 반대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의 소비는 늘고 있다. 어쨌든 쌀에 이어 밀이 제2의 주식인 셈인데, 문제는 다른 곡물의 자급률(우리나라 최근 3개년 평균 19.5%)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선조들이 소서에 별미로 먹었던 국수와 수제비를 언급하면서 우리 밀의 자급률을 걱정하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는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폭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가 지구촌을 덮고 밀과 옥수수 등 농작물 가격이 들쭉날쭉해 대부분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휘청일 수밖에 없다. 우리 밀 농사에 좀 더 신경을 쓸 때다.

/bigkim@kwangju.co.kr



병농협 임직원 광주 쌀 5만포 팔기 운동

병농협광주본부 쌀 소비촉진 운동 병농협광주본부는 지난 3일 광주본부 대강당에서 광주지역 병농협 임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쌀 5만포 팔기 및 소비촉진 운동' 추진 발대식을 갖고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및 신규거래처 발굴 ▲금요장터 지역 쌀 소비촉진 홍보관 운영 ▲지역 쌀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친환경농업 일번지' 전남, 저탄소·재생유기농 미래비전 선포

재생유기농업 실현 등 제시

전남도가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농업을 미래 전남 농업 비전으로 선포했다.

전남도는 지난 5일 도청 김대경감당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저탄소·재생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의 미래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전남지역 친환경농업인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군·협회 비전·다짐 영상 및 비전 발표 영상 상영,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날 미래 친환경 농업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전략으로 재생유기농업의 실현, 친환경 미

래농업 환경 조성, 저탄소·친환경 농업기술의 실천 등을 제시했다.

재생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히 유기농 인증 취득을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농민과 나아가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개념이다.

친환경농업의 지향점을 토양을 살리는 것에 두고 토양유기물 증가로 토양 속에 탄소를 격리해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면서 인공지능(AI)·에그테크·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유기 가공식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전략도 세웠다.

전남도는 또 농업 생산 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작물 보호제,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차별된 유기농산물을 생산·유통해 전남 농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전남 친환경농업 미래 비전'을 연구 용역 중인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 계획(2025~2030년)'에 담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한민국 친환경농업 일번지라는 타이틀은 친환경농업인의 땅과 눈물이 이룬 성과로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 '세계 유기농의 메카 전남'이 되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어촌 삶의 질 지수, 무안·광양 '상위권'

무안과 광양이 '삶의 질' 지수가 높은 전국 15개 농어촌 시·군에 포함됐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7일 내놓은 전국 129개(79개 군·50개 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무안군은 군 단위 지역에서 '삶의 질'이 높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시·군별 지수를 도출했다.

무안군의 경우 보건복지·문화공동체·지역활력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삶의 질' 지수가 높은 상위 20%(종합지수 14위)에 포함됐다.

광양시의 경우 경제·보건복지·문화공동체·지역활력 영역의 평가 결과 등이 반영되면서 경기 이전 다음으로 '삶의 질' 지수가 높은 '도농복합시'에 올랐다. 군 단위 지역으로는 울릉군(54.73점)이, 시 중에서는 이천시(59.3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